

익산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도약

행정안전부 공모 '고향올래' 선정... 지역 자원 활용해 숙소·작업 공간 등 창업 생태계 구축

익산시가 청년들의 발길이 머물며 창업의 꿈을 펼치는 도시로 본격 도약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고향올래 사업'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의 자원, 특색을 활용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익산시는 국비 포함 10억원을 투입해 '타임브릿지(TIMBRIDGE)', 익산 숲숨을 추진한다.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에 정착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근대 건축 문화 자산과 역사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구도심 인화동을 거점으로 숙소,



창업·협업 공간, 지역사회 교류 공간 등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솔리공방에 공유주방·사무실·회의실 등을 마련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창업 가능터(테스트 베드)로 탈바꿈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

간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창업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정주 기반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과거의 유산과 미래 청년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로컬벤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향올래 사업은 단순한 청년창업 공간을 넘어, 지역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소송 제기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경계 다툼을 넘어,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민 생활권 보호 문제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위해 '총력 대응'

군산시, 해상풍력 TF팀 구성 보고회 개최 등... 전략 수립 본격화

군산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올해 안에 지정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5년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및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법률 시행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집적화단지'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아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단지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을 지속해 왔다. 지난 3월 열린 제12회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는 집적화단지 사업구역을 공식 결정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군산시는 '해양 입지' 컨설팅 등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풍황 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등도 추진하고 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앞으로 해상풍력 TF팀을 조직해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관광 활성화 등 통합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는 공공성과 계획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주도의 모범적인 해상풍력 개발 모델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글로벌대학30' 도전 눈길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무제한 전과제도' 바탕

국립군산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인 '무제한 전과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대학30 선정에 당당히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군산대는 지난 9일 '학년 제한, 취득 학점 및 평점 제한, 횟수 제한'을 과감히 폐지한 3무(無) 전과 제도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무제한 전과제도는 자율전공체계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국립대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24학년도 1학기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하다.

특히 2024년도에는 총 198명의 학생이 무제한 전과제도를 활용했으며, 만족도는 96%로 나타났다.

국립군산대 오정근 글로벌대학추진단장은 "글로벌대학30이 지향하는 자율전공 시스템의 최종 진화 단계를 이미 실현하였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가 이미 축적되어 주변 대학들에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라이즈 사업 본격화... 지역·대학 '맞손'

익산시·시의회·4개 대학, 라이즈(RISE) 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취·창업 활성화 등 133억원 규모 사업 추진



익산시가 '라이즈(RISE)' 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대학의 동반성장과 고등교육 혁신에 나선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라이즈(RISE)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4개 대학이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이준화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백보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이 참석했다.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학과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왔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3월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익산시는 대학과 함께 △농생명·바이오 인재양성 △헬스케어 디지털전환(DX) △시니어 웰니스 직업교육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13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익산시는 지역 현안 발굴과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동행협력 지역발전' 분야에서 도내 시군 중 사업이 최다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이에 따라 △맞춤형 돌봄 환경 생태계 구축 △익산 대표 음식·맛집 발굴을 통한 미식 관광도시 구현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이공계 인재 교육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계속한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역량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대학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장은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의회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라이즈 사업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라이즈 사업을 추진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

군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8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5명으로 총 14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은과호수공원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0년 7월 2일~2007년 7월 1일 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이면 가능하다. 단, 신청자 중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63~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익산시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 232억 원 중 올해 1~3월에 37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6월까지 총 7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시는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및 현장 징수 강화,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채권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